

# “창업하고 싶은 학생 모여라!”

## 지스트, 모의창업 프로그램 협약식 개최

- 지스트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 2023 「GIST Sprint for Start-up」 시작돼
- 2014년부터 매년 개최... 6개월간 조건 없이 학생 창업아이디어 검증 지원



▲ 건전한 창업문화를 고취하고 다양한 창업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한 'GIST Sprint for Startup(GSS)'의 협약식을 개최한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
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지원하는 **지스트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 「GIST Sprint for Startup(GSS)」**이 2023년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.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임기철) 창업진흥센터는 17일(월) 낮 12시 제2학생회관에서 「**GIST Sprint for Startup**」 프로그램에 선정된 **8개 팀과 협약식을 개최**하고 간담회를 가졌다.

201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스트의 학생창업 지원 프로세스의 '간판 프로그램'이다. 「지스트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」에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한 후, 「GIST Sprint for Startup」에서 **학생이 실제로 검증하고 싶은 창업아이디어로 모의창업을 진행하고 창업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**이다.

참여팀은 반드시 창업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**시작품 형태의 초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시장 테스트까지 진행**할 수 있다. 이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아이템은 중단되고, **성공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.**

프로그램은 12월까지 6개월 동안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되며, 참여팀들은 검증 가능한 **초기모델의 시제품을 기간 내에 만드는 것이 목표다.**

참여팀들에게는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사업화에 도움을 주는 **멘토링 프로그램과 디자인·기술·법률·마케팅 자문 등이 지원된다.**

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2월에는 **최종성과물에 대한 보고회와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**이며 투자자 미팅도 진행된다. 이후 「**Campus CEO Challenge for Student(CCS)\***」과 같은 **후속프로그램도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**이다.

\* **Campus CEO Challenge for Student(CCS)**: 모의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창업팀이 최종 실전창업을 원할 경우에 지원하는 실전창업 프로그램으로 매년 3월에 모집한다.

참여팀 중에는 지난 6월 「지스트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」에서 ▲ 최우수상(질병 발병 가능성 예측이 가능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솔루션, 신소재공학부 주양현 학생팀)과 ▲ 우수상(암모니아 열분해 촉매, 지구·환경공학부 김성균 학생팀)을 수상한 팀이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이 외에도 '대형언어모델을 활용한 교정 인공지능 개발(융합기술원 주호택 학생팀)'과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나 '지스트 동문 네트워킹 플랫폼 앱(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심수연 학생팀)'과 같은 앱 서비스를 개발하는 팀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.

조병관 창업진흥센터장은 "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을 보완하고 **성공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팀들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**"이라며, "학생들이 창업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